

전남 친환경농산물 면적 전국 절반 넘어

지난해 인증 면적 4만3천340ha로 55% 달해 유기농 상향 인증 확대, 질적으로 성장 이뤄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의 1번지로서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4만3천340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가 넘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전체 인증면적 가운데 유기농 상향 인증면적이 1만1천469ha로 전년보다 145% 이상 늘어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결과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남 경지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인증면적에 비해 707ha 늘었다. 전국 인증 면적 점유율 측면에서도 2위인 전라북도(7.5%·5천874ha), 3위인 경기도(6.9%·5,396ha)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이루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

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경우 품목별로 차등해 ha당 과수 150만 원, 채소 130만 원, 벼 12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과수·채소 품목은 ha당 10만 원씩 상향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5ha에 이르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단가 역시 올해부터는 m당 2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0% 상향 지원한다. 벼 이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보성, 담양, 영암에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과수·채소 중심의 재배 기술 교육을 연중 추진한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무농약이 전년보다 2천800ha 줄었으나 유기농이 이를 훨씬 넘는 3천500ha나 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탄탄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2019년에도 품목 다양화, 산지 조 직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전남TP,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속 작년 18개사 7억8천만원 지원, 올해 예산확보 총력

전남테크노파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도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테크노파크는 전남도 위기지역 및 위기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밀집한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예산 10억2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R&D 기업지원 주요내용은 신제품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역 혁신기업 Scale-up R&D지원과 산학연 전문가 애로기술 솔루션지원,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시험분석, 인증지원을 위한 현장 수요형 R&D지원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작년 말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지원을 위해 대야산업(주) 외 7개사를 선정해 7억원 규모의 기

업지원을 했으며, 현장 수요형 R&D지원을 위해 (유)블루에스피 외 9개사를 선정해 8천4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전남 위기지역 중소기업 10개사를 추가 선정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를 통해 4일부터 2월 1일까지 R&D 기업지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전북·경남·울산 등 각 위기지역 R&D 기업지원을 수행하는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사업 책임자와 실무자가 협업체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최근 전남의 조선산업 내 대기업의 여건은 희망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노동집약형 단순 생산 활동을 해온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위기극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기반 성장 지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동종업종 사업다각화와 유사업종 전환을 병행 지원해 경쟁력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현대차그룹, 청각장애인 운전자 위한 기술 개발

'조용한 택시' 완성 영상 공개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선봬

현대차그룹이 청각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차그룹은 청각장애인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자동차인 '조용한 택시'를 완성하고 이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7일 공개했다.

'조용한 택시'는 2017년 현대차그룹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주행 지원 시스템(ATC: Audio-Tactile Conversion)'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시각에만 의존해 운전하는 청각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내·외부의 모든 소리 정보를 시각·촉각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감각 변환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운전자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6월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인 이대호 씨의 사연을 접하고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청각의 도움 없이 운전 하다 보니 경적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해 다른 운전자들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운전할 때 시각 집중도가 너무 높아 일반 운전자에 비해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상황이었다. 이



현대자동차그룹은 청각장애인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자동차인 '조용한 택시'를 완성하고 이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인 이대호 씨(52세)가 소리를 시각과 촉각으로 바꿔주는 감각 변환 신기술을 적용한 현대자동차그룹 프로젝트 자동차 '조용한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 제공

런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던 이 씨의 딸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사연을 보낸 것이 계기가 돼 이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조용한 택시'에 활용된 ATC 기술은 다른 운전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주행 중 운전자에 알아야 하는 다양한 청각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화해 전방표시 장치(HUD: Head Up Display)로 노출

시킬 뿐 아니라 운전대에 진동과 빛을 단 계로 발산시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용한 택시'와 함께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므로써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활발한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중 기자

광주은행, 중소기업 특별자금 3천억 지원

자금수요 많은 설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발 빠른 지원

광주은행은 설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7일부터 3월 8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천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2%를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안을 살펴 민생안정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발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추석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한 광주



은행은 신규대출 2천156억원, 만기연장 4천884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핏줄

생각을 살립니다